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에?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순관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삼 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의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주하는 꺾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4:22~29]

두 사람이 눈 덮힌 산길을 가다가 죽어 가는 사람을 발견하죠. 한 사람은 그냥 갑니다. 또 한 사람은 쓰러진 사람을 등에 업고 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먼저 간 사람은 얼어 죽었습니다. 죽어 가던 사람을 등에 업고 갔던 그 사람은 결국 둘 다 살았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을 버려두고 갈 수가 없어서 업고 갔는데 결국은 자기를 살리는 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종종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나 혼자 잘 살아 보겠다고 발버둥 쳤더니 결국은 망하는 길이고,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베푼다고 베푼 것이 지나고 보면 자기를 살리는 길이 되어 버리는 일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복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들에게 흔히 있는 일입니다. 지뢰밭 아시죠? 멋모르고 지나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지뢰밭이었고, 지나왔는데 지뢰를 하나도 밟지 않았다면 그 느낌이 어떨까요? 우리가 지뢰밭을 밟을 일은 없죠? 재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뒤를 돌아보니 지뢰밭이었어요. 지뢰가 곳곳에 묻혀 있었는데 어떻게 밟지 않고 지나왔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런 감격이 종종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앞도 뒤도 재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목숨 걸고 가보면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생애에 종종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말에 이런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더라.” 유대인들이 늘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안식일이 되었어요. “안식일이니, 싸울 수 없다.” 그래서 모두 전멸했어요. 이럴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결국 로마는 유대인들은 징집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유대인답게 살려 놨더라는 거예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인데, 지혜롭고 지혜롭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던 결과로 이런 일이 생겨났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 본문을 살펴보고요 합니다.

22절을 보시면 **너는 마땅히 매 년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십일조를 드려라’는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십일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도 십일조에 관한 것이 한데 다른 이야기예요. 23절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이렇게 되어있죠. 위에서는 ‘십일조를 드려라’고 하고 여기서는 ‘먹으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십일조에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드리는 십일조가 있고 먹는 십일조가 있었어요.

드리는 십일조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거의 똑 같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더 이상 십일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다른 십일조를 말합니다. 먹는 십일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10을 드린 것이 아니고 사실은 2/10을 드린 겁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십일조를 두 번 하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 걱정이 안 되시나요? 오늘 괜히 오후 예배에 남았다가 십일조 말고 또 다른 십일조가 있다더라 해서 혹 걱정이 되실까 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

다. 이대로 하란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먹는 십일조를 제 2의 십일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늘 날 우리가 내는 세금과 관련이 많은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두 종류의 십일조를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미리 전제로 합니다.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은 십일조를 한다는 것은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액수를 보면 정말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이렇게 현금 많이 하고 무엇을 먹고 사느냐?" 혹시 이런 소리 들어 보셨어요? 안 들어 보셨으면 앞으로 그런 소리 좀 듣고 사시기 바랍니다. 옆의 동료들이 우리가 십일조 하는 것을 어찌다 보면 아는 수가 있어요. 저는 한마디로 딱 잘랐어요. "너 술집에 갖다 주는 돈보다 적다." 술 먹는 사람들이 술집에 갖다 주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 말 한 마디에 쑥 들어가 버렸어요.

실제로 '십일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두 종류의 십일조 중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아니 전혀 생각도 안 하는 다른 십일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십일조가 정말 그렇게 부담스럽고 힘든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4절을 어느 부분이 중요할지를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십일조를 가지고 가는데 그게 너무 많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십일조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풍부히 주신 것에서! 십일조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별로 없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이런 마음이라면 십일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감사헌금을 했는데 제목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십일조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십일조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할 수 있게 형편을 만들어 주셔서 십일조 외에 감사헌금을 드린 겁니다. 아마 그 분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십일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서 '아, 이 아까운 것~' 이런 마음으로 십일조를 했다면 헛일 아닌가 싶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헌금은 제가 보기에 헛수고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십일조나 다른 헌금도, 아까운 생각이 든다면 헌금을 먼저 하실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것부터 배우는 게 먼저예요. 그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믿어지거든, 그리고 그것이 감격스럽거든 그 때 헌금하세요.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회계 말은 분들은 야단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돈, 특히 액수에 관심이 있으면 안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돈이 아니에요. 액수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것, 그것이 십일조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십일조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헌금보다 성경 공부를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감격이 일어나지 않거든 말씀을 먼저 배우고 그 감격을 누리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본문에서 십일조를 바치는 분위기가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십일조 드리는 분위기가 어떠세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사고 그걸 권속과 함께 먹고 즐기는 겁니다. 이 구절에 좀 조심해야 할 구절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술을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로 논쟁을 많이 할 때 제가 가만히 듣고 앉아 있으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싸움을 하기는 하는데 우스워요.

왜 이 구절을 안 건드리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신다고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세요. 술 마시는 분들이 보면 너무너무 좋은 구절이 여기 하나 있어요. 십일조 가지고 사라고 하는 품목 중에 무엇이 있어요? 율고 지나갔는 데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눈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 있죠? 독주가 들었어요! 독주가 거기 왜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 가지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십일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먹는 십일조는 그 돈으로 나한테 필요한 것을 사는 거예요. 사서 식구들과 먹고 함께 즐겁게 지내는 것, 그것을 말하는데 거기에 독주가 들어 있다니까요. 분위기는 잔치 분위기에요.

술 먹는 사람들은 한잔해야 흥이 난답니다. 남학생들 데리고 소풍을 가면 “야, 모처럼 나왔으니 까 모여! 모여! 그래서 오늘 신나게 노는 거야.” 그러다고 잘 놀까요? 안 놀아요. 저쪽에 있는 반 애들은 난리가 나서 잘 노는데 여긴 안 놀아요. “오늘 마음껏 놀아!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도 놀고.” 그래도 안 놀아요. 왜 그렇죠? 선생님이 잠시 자리를 비켜 줘야죠. 아이들 곁에서 “놀아, 놀아!” 하면 안 놀아요. 자리를 잠시 비켜 주었다가 돌아오면 잘 놀고 있어요. 그 사이에 몰래 몰래 숨겨 왔던 것 한 잔씩 하고 잘 놀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술이 한 잔 들어가면 그렇게 분위기가 달라지나 봐요. 어디 가서 술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 구절 가르쳐 주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 권속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술 마시는 풍토와 이 사람들이 술 마시는 것은 개념이 좀 달라요. 이 구절을 보면 술 먹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느낌이 금방 들어요. 독주까지 사서 기쁘게 지내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다. 이게 두 번째 십일조, 즉 먹고 마시는 십일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늘 엄숙하게 품 잡고 경건만 떠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웃과 가족을 즐겁게 섬기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27절에,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같이 즐기란 얘기죠? 레위인에게 기업을 주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하라고 해 놓고 다른 사람들이 수확을 거두어서 먹고 즐거워 할 때 레위인들을 잊지 말고 꼭 챙겨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을 주지 않으시고서는 추수해서 먹고 즐길 때 레위인을 잘 기억해라.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즐거워 할 때 레위인을 잊지 말아라. 이게 당부예요. 왜 그러실까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걸 기억하면서 레위인을 기억한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않으면 레위인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져요. 레위인들이 굶어야 합니다. 어느 날 옆집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 짬짬 굶고 있어요. “아이고, 이것이라도 양식하세요.” 하고 갖다 주면 정상적인 레위인이라면 못 먹어요. “우리는 그것을 못 먹습니다. 우리가 불쌍하다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부를 받으시고 나머지 몫이 레위인에게 갑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버티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제사지내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레위인들이 굶어 죽게 된다니까요! 그 레위인들이 불쌍하거든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말이 됩니다.

28절을 보시죠, **매 삼 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의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하죠? 삼 년 끝에 십일조가 또 다르게 나와요. 이것도 또 다른 십일조입니다. 십일조가 두 가지라 했는데 삼 년 끝에 내는 십일조가 또 있으면 십일조 종류가 세 가지가 되죠. 사실은 먹는 십일조, 다른 말로 제 2의 십일조라는 것과 여기에 삼년마다 드리는 십일조는 내용이 같은 겁니다. 2년 동안은 먹는 십일조를 드리고 3년째는 용도를 달리 하라는 뜻입니다. 3년 째에는 가난한 이웃들과 객과 레위인들을 돌봐주는 구제용으로 쓰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과 더불어서 즐거워하는 것과 가난한 이웃을 늘 기억하라는 것을 명령 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시킨다면 하나님께 십일조나 헌금을 드리지만 소득의 일부는 가족과 함께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써야 합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그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일부는 가난한 형제들, 또는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데 쓸 돈을 따로 마련하라는 뜻입니다. “아, 가뜩이나 모자라는데요? 저축도 해야 되는데요?” 예, 최대한 아끼고 저축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데 쓰는 비용도 마련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될지는 가정 형편대로 하시되 하나님의 뜻에 그런 게 있다는 것만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아끼고 안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 가족과 이웃과 함께 어울려서 쓰는데 이만큼 쓰고, 이 부분은 우리 생활비인데 아끼든지 쓰든지 최선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쁘는데 무슨 십일조에다가 먹는 십일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사냐? 그런 걱정이 분명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길게 보면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돈을 많이 버는 줄 알았어요. 돈 많이 버는 줄 알고 정말 잘 나갔어요. 몇 년 동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사업한다고 원금 투자 했던 것까지 다 까먹었더라고요. 문제가 무엇이냐 하니깐 자기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 계산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를 벌고 있는지 계산을 안 했다는 것은 십일조도 기본 내키는 대로 했다는 뜻이에요. 십일조하려면 자신의 소득을 잘 살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십일조 하기가 쉬운 분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십일조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신의 소득이 얼마인지 계산 안 되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장롱 500만 원짜리 하나를 팔았어요. 십일조를 얼마 해야 되나요? 50만원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농 만드는 분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농 하나를 팔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백골을 사 온대요. 거기다가 자개를 다 입혀요. 그래서 500만 원짜리를 만들어요. 500만 원짜리 하나 만드는데 들어간 그 백골로 된 농을 사온 비용과 거기에 자개를 입힌 비용이 추측컨대 400만원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내 돈 400만원을 들여서 500만 원짜리 하나를 완성시킨 거예요. 십일조를 얼마 해야 됩니까? 내 손에 떨어진 것은 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나 다른 영업비용이 들어간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손에 남은 이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십일조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하는데 야박스럽게 다 계산하고 따져야 됩니까?” 자신이 소득이 얼마인지를 계산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심한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1억을 주고 집을 샀는데 몇 년 살다가 같은 값에 되팔았어요. 십일조를 얼마를 해야 합니까? 1,000만 원요? 그게 소득인가요? 그렇게 한다면, 집을 10번만 사고판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계산이 제일 어려웠던 분은 한 집 수리해서 고쳐 주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워요. 내가 받은 금액이 소득이 아니에요. 이것을 받기 위해서 투자한 자재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얼마며,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합부로 짐작으로 툭툭툭 하다가는 정말 원금 까먹는 일이 벌어집니다. 십일조를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자기 사업의 손익을 차곡차곡 따져나가다 보면 그것이 자기 삶을 견실하게 붙들어 준 원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봉급이 많아지면 십일조 하기가 쉬워요? 작게 벌 때 십일조 하기가 쉬워요? 이것 쉬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봉급이 많아지면 십일조 하기가 어려워진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액수가 점점 점점 늘어나니까? 그 말은 자기가 쓸 수 있는 돈도 9배가 늘어나는데도 사람의 심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 내게 얼마를 주셨는지를 철저히 계산하면서 십일조를 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드리면 잘 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에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 중의 하나가 ‘경주 최부자’ 이야기입니다. 만석꾼을 10대를 이어 갔다면 약 400년 정도 갔다는 뜻인데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도 위기가 있었어요. 그 가문이 끊어질 만한 위기가 있었는데 농민 반란이 일어났을 때예요. 농민 반란이 일어나면 부자들이 위협해집니다. 부잣집 다 털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민 반란군이 최부자 집까지 쳐들어왔을 때 그 집을 지켜준 사람들이 농부들이었어요. 그 집에 종살이 하고 있거나, 소작 부치고 있는 소작인들이 그 집을 지켜준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부자 집 이야기를 보면 감동될만한 일이 참 많습니다.

적어도 80리 안에는 밥 굶는 사람 없도록 해라. 그래서 80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양식이 필요하면 다 그냥 줬어요. 손해예요? 득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다 먹였어요. 적어도 80리 안에 있는 사람

밥 굶지 않도록 해라. 다 먹었어. 다 먹으려면 적지 않은 양식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평소에 그렇게 했더니 진짜 위기의 때에 농민들이 그 집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생겨나리라고 생각을 못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이런 지혜는 아무나 가질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른 채 그런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고 난 뒤에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십일조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해서일까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치사한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내가 돈 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돈이 필요한 거야.' 돈 문제 정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을 정돈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셨으니까 감사해야 되고, 자신들을 대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돌봐야 되지 않느냐 가난한 자들도 돌보고 그래서 십일조를 하라 한 것처럼 보여요. 맞고 맞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23절을 다시 보세요. 왜 십일조를 드리라고 하는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십일조 드리라는 이유 아시겠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경외를 배우라는 뜻이에요. 아니,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십일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중에 처음 선생님이 되시는 분들은 너무 깨끗해요. 아이들이 선물이라고 들고 오면 절대 받지 않아요. 참 깨끗한 분이죠. 어떤 선물도 안 받는다고 다 사절해요. 참 깨끗해 보이죠? 저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옆 선생님이 저에게 코치를 했어요. 아이들이 주는 것을 거절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아이들이 마음을 담아 주는 것은 기쁘게 잘 받는 것, 이것이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걸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고생 많이 했어요. 애들이 되도 않는 선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이들 50명이 엮서 꾸러미에 인사를 다 썼어요. 뭐 그렇게 반가운 인사 아니에요. 그걸 코팅을 다 해서 꾸러미 꾸러미 가지고 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길이 길이 보관하라는 건데, 그렇게 보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받아 들고 "아, 그래 고맙다." 그러고는 서양 사람들 옷 두르듯이 이리로 한 바퀴 돌리고 또 저쪽으로 한 바퀴 돌리고 치렁치렁 하게 해서 학교를 한 바퀴 돌았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저는 속으로 쪽팔려 죽을 뻔 했어요. 그러는 것이 선생님과 아이들의 관계가 밀접해지는 좋은 계기가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돈을 탐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규정을 만드심으로 하나님 경외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셨어요. 소중한 여기는 것에 마음이 가는 것이 맞아요. 혹시 평소에 없던 큰돈이 생겨서 집안에 놔두고 오셨다면,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뭐만 잘 보여요? '내가 나올 때 문을 잠그고 나왔나? 혹시 아이들이 들락거리다가 문 열어서 누가 오지 않을까?' 하루 종일 신경이 곤두서 있다가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고 싶다.'란 뜻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십일조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드시면 하지 마세요. 내가 기뻐하지 않는데 무엇을 하나님께 드린단 말입니까?

소득의 100%를 혼자 쓰는 사람과 소득 중에 십일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가난한 이웃도 돕고 해서 일부를 떼어 쓰는 사람하고 누가 더 쪼들릴까요? 혼자 움켜쥐고 사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능력으로만 사는 사람이예요. 그런데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도 섬겨야 하고 헌금도 해야 하고 이웃도 돌봐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킬 것은 지키시고, 돌볼 것은 돌봐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내 계획이나 내 뜻대로만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뜻하지도 않았던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그것이 좋은 방향일 수도 있고 나쁜 방향일 수도 있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조금 밀어 주시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적절하게 한 번씩 밀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늘에서 복이 푹 떨어진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지키시고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길게 보면 이런 분들이 덜 쪼들리고 살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세요, 29절 중간입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법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앞에서 행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별도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비교적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면 신명기를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신 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오래오래 장수하고~' 그런 구절이 참 많이 나와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있어서 '내 놓아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게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노력 이상의, 하나님께서 한 번씩 살짝 살짝 밀어 주시는 그 삶이, 내가 죽자고 열심히 내는 것보다 더 유리해요. 그래서 훗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저런 일에 내가 생각도 못했던 복을 주시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